

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한국형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창원유치 건의

1. 현 황

- 정부는 민간우주 개발시대에 발맞추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창출을 추진목표로 삼고, 지난해 10월 ‘한화에어로스페이스(주)’를 한국형발사체의 체계종합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였음.
-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(주)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형발사체(KSLV-III) 개발 사업의 조립·제작과 2023년 상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사전준비 및 발사운영에 참여할 예정임.
- 미래의 우주는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활용하는 공간이자 국가안보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향후 추진되는 우주개발사업은 그 중요성으로 비추어볼 때 국가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을 것임. 이에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투입 등을 통한 민간주도의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.
- 따라서 ‘한국형우주발사체 고도화사업에 따른 단조립장’은 단순한 우주발사체 조립이 아닌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화와 미래성장 전략산업의 자산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임.
- 이에 정부 목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체계종합기업을 중심으로 발사체 조립·제작의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에 조성되어야 할 것임.

-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(주)의 본사 및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창원특례시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관련 기업 105개사(전국의 20% 이상) 입주, 방위산업 매출의 24%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제조·생산을 담당하는 지역임.
- 더불어 초고온소재실증연구센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, 정밀기계와 전기제어 등을 중심으로 지상, 항공, 우주 분야의 초정밀 부품 생산이 가능한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향후 우주산업과의 연계성장이 가능한 지역임.
- 무엇보다 방위산업과 연계를 통해 항공우주분야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·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을 함께 육성함으로써 국방우주로의 확대를 추구하는 정부정책에도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 사료됨.

2. 건 의

-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종합적인 발에 있어 최적의 산업생태계와 입지조건을 갖춘 **창원특례시에 한국형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.**

2023년 2월 6일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 자 천